

# 이동전화번호의 통합사례 분석 - 영국과 일본사례를 중심으로 -

책임연구원 김진기\*

연구원 김설\*\*

2002년 1월 국내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도입정책이 확정되어 발표되었다. 이 도입정책에서 현재의 2G 번호를 향후에 3G 번호인 010으로 통합한다는 계획이 포함되었다. 이동전화번호의 통합을 앞서 실시한 영국과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고, 이들 사례의 시사점과 함께 국내 적용시의 고려사항을 검토해보았다.

## 목 차

- |                      |                     |
|----------------------|---------------------|
| I. 서론                | 1. 번호통합의 배경과 내용     |
| II. 영국의 이동전화번호 통합사례  | 2. 추진과정과 결과         |
| 1. 번호통합의 배경과 내용      | IV. 해외사례의 시사점       |
| 2. 추진과정과 결과          | V. 국내 적용시 고려사항 및 제언 |
| III. 일본의 이동전화번호 통합사례 |                     |

## I. 서론

정보통신부는 지난 2001년 12월 31일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도입정책(안)을 마련하고 이후 2002년 1월 21일 통신위원회는 동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도입정책(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동전화 번호이동성(Mobile Number Portability: MNP)이란, 이동전화 이용자가 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기존의 이동전화번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정보통신부가 발표한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정책의 주요 내용을 보면, 도입범위는 우선적으로 3G(2GHz IMT-2000)<sup>1)</sup> 서비스에 대해 전면 도입하되, 번호이동성 시행 이후 1년 이내

연락처 : \* 통신·방송정책연구실 (02) 570-4357, kimjk@kisdi.re.kr

\*\* 통신·방송정책연구실 (02) 570-4246, yuki@kisdi.re.kr

1) IMT-2000: International Mobile Telecommunications

에 경쟁상황, 비용편익, 번호사용률, 단말기 개발현황 등을 종합 평가하여 2G(PCS, Cellular) 간, 2G → 3G간 번호이동성 도입방침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다만, 3G(2GHz IMT-2000) 서비스 개시 이후 5년 이내에 기존 2G(PCS, Cellular) 식별 번호(011, 016, 017, 018, 019)를 회수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기술방식은 지능망 방식인 Query on Release(QoR)을 채택하되, 유선 발신호의 경우에는 QoR과 연동되는 All Call Query(ACQ) 방식을 허용하였다. 도입시기는 복수 사업자가 2GHz IMT-2000 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6개월 이내(2003년 하반기 예정)에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번호이동성을 제약하는 3G(2GHz IMT-2000) 단말기 개발·보급문제 및 세부방안(기술표준, 상호접속, 비용분담, 운용처리) 등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관련 사업자, 전문기관, 학계 및 소비자 단체 등으로부터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보통신부의 정책에서 관심이 모아지는 부분이 바로 기존 2G(PCS, Cellular) 식별번호를 3G 서비스 개시 이후 5년 이내에 회수함으로 원칙으로 한다는 대목이다. 이는 기존의 2G 식별번호를 회수하고, 2G의 번호도 현재 3G의 번호로 책정해둔 010으로 통합한다는 의미이다.

본 논고는 우리보다 앞서 이동전화번호를 통합한 경험이 있는 영국과 일본의 사례를 분석해봄으로써 향후 국내 이동전화번호의 통합 추진에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우선 영국과 일본의 사례를 분석해보고, 각 사례의 시사점을 살펴본 뒤에 국내의 이동전화 식별번호 통합에 있어서 고려사항을 점검하고자 한다.

## II. 영국의 이동전화번호 통합사례

### 1. 번호통합의 배경과 내용

번호변경과 관련된 영국의 최초의 문서는 1997년 1월 산업통상부(DTI)<sup>2)</sup> 장관명의로 발표된 『The National Numbering Scheme』이다. 이 문서에서 번호에 대한 공정하고도 균등한 분배는 번호를 이용하여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에게 있어서 경쟁을 활성화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언급하였다.

---

2) DTI: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영국은 사실 1995년 『PhONEday』라는 명칭하에 기존에 9자리의 번호체계를 10자리의 번호체계로 변경한 경험이 있다. 이를 통해 전체 90억개의 번호를 할당할 수 있는 체계로 변경하였다. 기존에 02에서 09까지의 번호를 01계열로 모두 통합함으로써 02부터 09까지의 계열을 다시금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sup>3)</sup>

이러한 번호변경은 미래의 번호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번호변경의 대상으로는, 유선전화, 이동전화, 무선호출 등 전부분의 통신서비스가 모두 포함되었다.

〈표 1〉 영국 전화번호 변경의 내용

	기 준		변 경
유선전화	01XX, 01XXX, 01XXXX	→	02X
무선호출		→	076
이동전화		→	077-079

## 2. 추진과정과 결과

이동전화의 경우는 1999년 9월 30일부터 기존의 번호체계와 변경이후 번호체계를 병행해서 사용하다가 2001년 4월 28일부터는 변경된 번호체계만으로 운영하도록 하였다. 초기에는 07 식별번호가 아닌 기존번호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였고, 07 식별번호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기존에 이동전화기 아닌 서비스에 07 식별번호가 부여된 번호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2001년 4월 28일부터는 07 식별번호만을 사용하게 하였는데, 기존 번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번호를 알려주는 안내방송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안내방송은 이후 1년동안 제공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역시 기존에 이동전화의 용도가 아닌 07 식별번호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사용을 허용하였다.

이동전화 사업자들은 1997년 5월부터 다음의 〈표 2〉에서처럼 영국 통신청(OfTel)<sup>4)</sup> 제시한 번호변경체계에 따라 신규 번호를 부여할 수 있게 되었고, 가능한 빨리 모든 사업자들이 신규 번호로 부여하도록 규정하였다. 2001년 4월 28일 이후부터는 07 식별번호만을 이동전화용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였다.

3) OFTEL, The National Numbering Scheme, 1997. 1.

4) OfTel: Office of Telecommunications

〈표 2〉 영국 이동전화 식별번호 변경

사업자	기존 식별번호	신규 식별번호
Vodafone	0370	07770
	0374 X(for X= 0-4, 6-9)	07774
	0378	07778
	0385	07785
	0421	07721
	0441	07741
	0467	07767
	0468	07768
	0498	07798
	0831	07831
	0836	07836
Cellnet	0401	07701
	0402	07702
	0403	07703
	0410	07710
	0411	07711
	0585	07885
	0589	07889
	0802	07802
	0850	07850
	0860	07860
One2One	0930 7	07930 7
	0956 X(for X= 1-6, 8, 9)	07956 X
	0958	07958
	0961 X(for X= 0-6, 8, 9)	07961
Orange	0966	07966
	0973	07973
	0976	07976
Guernsey Telecom	04481	07781
Manx Telecom	0462 4	07624
Jersey Telecom	0979	07797

자료: OFTEL, *National Code & Number Change Framework Document: Code and Number Changes for Geographic, Mobile, Paging, Special Rate and Premium Rate Services*, 2001. 3. 20.

영국의 경우는, 07 식별번호를 부여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가입전환과 신규 가입이 이루어져서 실제적으로 번호통합에 의한 번호의 변경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 Ⅲ. 일본의 이동전화번호 통합사례

#### 1. 번호통합의 배경과 내용

일본의 총무성은 「전기통신번호 관련 연구회」를 구성하여, 전기통신 번호체계와 관련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왔다. 이 연구회는 유선전화의 번호체계에 관한 장기적인 계획과 새로운 기술 및 서비스의 도입을 실현시키기 위한 번호체계에 대한 검토 등을 주요 목적으로 하였다. 이는 향후 이용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유선전화의 번호체계에 관한 장기적인 계획의 수립과 다양한 접속방식(DSL, 위성, FWA, CATV망 등)<sup>5)</sup> 이용한 고속·대용량 접속망, IMT-2000, IP 전화<sup>6)</sup> 등의 새로운 기술·서비스도입에 따른 번호부여방안, 그리고, 신규 통신사업자의 시장진입 및 사업자간 접속의 다양화로 인한 번호 수요의 증가에 대비한 새로운 번호체계의 정비가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이용자의 이용수요 확대와 전화망을 이용한 정보통신시스템 구축 및 보급에 따라 기존 번호체계를 변경할 경우, 사회적 영향을 가능한 한 줄이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일본의 전기통신번호 기준은 「전기통신번호규칙」에 의하며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 제4조 전기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열거하는 기준에 따라 전기통신번호를 사용해야 한다.
- ① 전기통신번호 사용은 전기통신 업무 제공을 위해 필요한 것에 한함
  - ② 전기통신번호에 의해 전기통신설비 또는 전기통신업무 종류 또는 내용을 식별가능하게 할 것
  - ③ 전기통신번호의 효율적인 사용을 도모할 것
  - ④ 이용자가 공평하게 전기통신번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
  - ⑤ 제3장에서 규정한 전기통신 번호의 규정에 관한 수속에 근거 총무성 장관이 지정한 전기통신 번호를 사용할 것

또한, 이동전화번호는 전기통신번호규칙 제8조에서 「휴대·자동차전화에 관한 단말설비를 식별하기 위한 전기통신번호(이동전화단말을 식별하기 위해 전기통신번호를 규정하는 국제전기통신연합조약에 근거 권고에 준한 것에 한함)는 별표 제1 제4호<sup>7)</sup>에서 정한 것으로 한

5) DSL: Digital Subscribers Loop, FWA: Fixed Wireless Access, CATV: Cable Television

6) IP 전화(Internet Telephony): Internet Protocol, VoIP: Voice over Internet Protocol

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휴대전화의 전화번호는 090-CDEFGHJK의 체계로 구성되며 CDE부분을 사업자마다 지정하고 있다. 번호계열의 부분은 90과 CD 코드, 1행의 0~9는 E코드를 표시한다. 또한, PHS<sup>8)</sup>의 번호는 070-CDEFGHJK의 체계로 구성되며, CDE부분을 사업자마다 지정하고 있다. 번호열의 부분은 70과 CD코드, 1행의 0~9는 E코드를 표시한다. 이 번호 체계는 1999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시행된 것이며 이전의 휴대·자동차 전화번호와 PHS(간이 휴대전화) 전화번호는 다음의 <표 3>과 같이 10자리의 번호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1번 자리의 '0'과 3번 자리의 '0' 사이에 있는 번호로 휴대전화·자동차전화와 PHS를 구별할 수 있었다.

<표 3> 일본의 이동전화 번호체계(변경전)

0	△0	□□	×××××
prefix	2자리의 번호 휴대·자동차전화나 PHS를 나타내는 번호	2자리의 번호 사업자별로 할당된 번호	5자리의 번호 가입자에게 할당된 번호
휴대·자동차전화			(1998년 6월말 현재)
0	1	0	
0	2	0	
0	3	0	
0	4	0	
0	8	0	
PHS(간이형 휴대전화)			
0	5	0	
0	8	0	

그러나, 전화 수요의 증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휴대·자동차 전화 및 PHS의 전화 번호를 10자리에서 11자리로 변경하여 전화번호의 자릿수를 증설하기로 결정하였고, 전화 번호 변경을 1999년 1월 1일 오전 2시를 기점으로 일제히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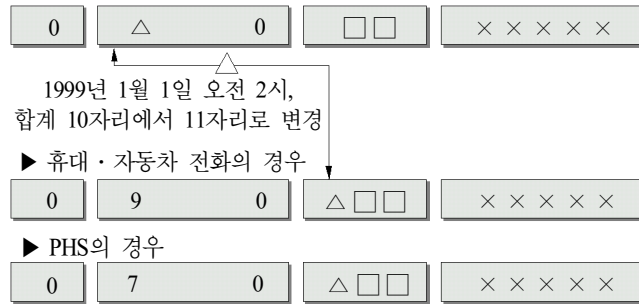
구체적으로는 휴대·자동차 전화의 전화번호의 경우, 「090」을 부여 이후 번호에 1998년 6월 현재(<표 3>) 사용하였던 번호를 처음 3행의 「0△0」의 「△」을 이용하여, 「0△0」 다음 7자리를 그대로 붙인 11자리 번호로 구성하였다.

PHS의 전화번호도 마찬가지로 「070」을 부여 이후 번호에 1998년 6월 현재(<표 3>) 사용하였던 번호를 처음 3행의 「0△0」의 「△」을 이용 이후 「0△0」 이후의 7자리를 그대로 붙인

7) 44M1, M2, M3부터 시작하는 15자리를 넘지 않는 십진수. 단, M1, M2, M3은 총무성 장관의 지정에 의해 제1종 전기통신사업자마다 정해진 수입  
8) PHS: Personal Handyphone Systems

11자리의 번호로 구성하였다.

〈표 4〉 일본의 이동전화 번호통합 사례(변경후)



## 2. 추진과정과 결과

이후, 총무성은 2000년 7월 휴대·자동차 전화에 관한 단말계 전송로 설비를 식별하기 위

〈표 5〉 일본의 휴대전화 전화번호 지정 현황<sup>9)</sup>

(2001년 4월 현재)

0A0	번호	0	1	2	3	4	5	6	7	8	9
90	9010	도코모 시코쿠	도코모 관서	도코모			도코모 토후쿠	도코모 관서	도코모 큐슈	도코모 토카이	
90	9011	KDDI	도코모			au					
90	9012	츠카셀룰러 동경	츠카셀룰러 관서	츠카셀룰러 토카이	츠카셀룰러 관서	츠카셀룰러 동경			츠카셀룰러 토카이		
90	9013	J폰동일본	J폰서일본						J폰동일본	J폰동일본	J폰서일본
90	9014	도코모	도모코 토카이	도모코		도코모 관서	도코모		도코모 토카이	도코모 관서	도코모 토후쿠
90	9015	도코모	도모코 큐슈	도모코 홋카이도	도코모			도코모 토카이	도코모 시코쿠	도코모 관서	
90	9016	도코모		도코모 토카이	도코모 호쿠리쿠	도코모 홋카이도	도코모		도코모 관서	도코모 츄코쿠	도코모
90	9017	J폰동일본	J폰서일본	J폰토카이	J폰동일본	J폰토카이		J폰동일본		J폰토카이	
90	9018	KDDI							도코모 큐슈	도코모	도코모 관서
90	9019	au				오키나와 셀룰러	au			도코모 토카이	도코모
90	9020	au									

자료: 총무성, 전기통신번호지정현황

9) 일본의 휴대전화 전화번호 지정현황은 90의 경우 9099까지 지정되어 있으나 이 <표 5>에서는 9020까지 기재함

〈표 6〉 일본의 PHS 전화번호 지정 현황

(2001년 4월 현재)

0A0	번호	0	1	2	3	4	5	6	7	8	9
70	7050	동경통신 네트워크	DDI포켓(동경)		DDI포켓 (토카이)	DDI포켓 (관서)	DDI포켓 (시코쿠)	DDI포켓 (호쿠리쿠)	DDI포켓(동경)		DDI포켓 (토후쿠)
70	7051	도코모	도코모 홋카이도	도코모 토후쿠	도코모	도코모 후쿠리쿠	도코모 토카이	도코모 관서	도코모 시코쿠		도코모 큐슈
70	7052	도코모					도코모 토카이	도코모 관서	도코모 큐슈	도코모 홋카이도	도코모 큐슈
70	7053	도코모 시코쿠	도코모 큐슈	도코모 토후쿠	도코모 토카이	도코모 관서	도코모 시코쿠	도코모	도코모	도코모 관서	도코모
70	7054	DDI포켓(큐슈)		DDI포켓 (시코쿠)	DDI포켓 (관서)	DDI포켓 (토카이)	DDI포켓(동경)		DDI포켓 (토후쿠)	DDI포켓(큐슈)	
70	7055	DDI포켓 (관서)	DDI포켓 (시코쿠)	DDI포켓 (츄코쿠)	DDI포켓 (큐슈)	DDI포켓(동경)					
70	7056	DDI포켓 (홋카이도)		DDI포켓 (토후쿠)	DDI포켓 (호쿠리쿠)	DDI포켓 (토카이)	DDI포켓(관서)		DDI포켓 (츄코쿠)	DDI포켓 (시코쿠)	DDI포켓 (큐슈)
70	7057	아스텔 홋카이도	동경통신 네트워크			아스텔 중부	아스텔 시코쿠	아스텔 토후쿠	케이 오프티콤		
70	7058	동경통신 네트워크	아스텔 오키나와	아스텔 시코쿠	아스텔 호쿠리쿠	아스텔 큐슈		동경통신 네트워크			
70	7059	아스텔 큐슈	동경통신 네트워크	아스텔 시코쿠	케이 오프티콤		아스텔 큐슈	아스텔 중부	아스텔 시코쿠	동경통신 네트워크	
70	7060										

자료: 총무성, 전기통신번호지정현황

해 전기통신번호에 새로운 「080」을 추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적인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이 개정의 배경에는 2000년 3월말 현재 휴대·자동차 전화 가입자 수가 5,114만으로 계속 증가하였으며 IMT-2000도 휴대전화와 같은 번호계열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앞으로 이와 같은 번호 수요가 계속 증가될 것이라는 가정이 있었다. 2001년말에 「090」 번호계열이 거의 소진할 것이므로 조기에 번호 용량을 확대하기 위한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090」과 근접한 「080」을 새롭게 추가하여 휴대·자동차 전화 번호 용량 확대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또한, 「휴대·자동차전화」로 하였던 명칭을 「휴대전화」로 변경하였다.

IMT-2000 번호체계에 관해서는 국제 표준에 따라 전화망 및 ISDN<sup>10)</sup>과 접속되는 IMT-2000

10) ISDN: Integrated Service Digital Network



의 이용자 식별번호는 ITU-T<sup>11)</sup> 권고 E.164 번호체계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E.164의 권고에 의거해서 각 국가는 국내번호체계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다.

일본에서는 지금까지 이동통신서비스의 번호체계로 기존 휴대전화의 090번호, PHS 070번호 등 0A0번호를 사용해왔고, IMT-2000에서도 비지리적 번호인 「0A0」으로 결정함에 있어서 IMT-2000 서비스의 특징을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존 휴대전화와 같은 「090」 번호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 음성통화는 기존의 휴대전화와 같은 서비스 사양일 것
- IMT-2000의 음성통화부분에서 발신 측의 요금이 기존 휴대전화와 큰 차이가 없도록 할 것
- 국제표준 규정에서 음성통화와 음성통화 이외의 서비스에 이용자식별자를 다르게 한다는 규정이 없을 것
- 기존 휴대전화와 IMT-2000이 다른 번호 체계일 경우, 번호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기존 휴대전화와 같이 IMT-2000은 이동통신망에서 무선 구간에서의 이동단말 제어를 실시하므로 전화번호와 다른 ITU-T 권고 E.212에 준한 이동가입자식별번호(IMSI)<sup>12)</sup>를 이용하고 있다. 이에 의해 다른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로밍할 경우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때, 전화번호에 의존하지 않고 무선구간에서의 이동단말 제어가 가능하다. 이미 PDC방식,<sup>13)</sup> cdmaOne방식<sup>14)</sup>의 기존 휴대전화에 ITU-T 권고 E.212에 준하여 IMSI를 이용하고 있으며 IMT-2000에서도 ITU-T 권고 E.212에 준한 IMSI를 이용하도록 하여 전 세계에서 공통 이동가입자식별번호체계를 이용함에 따라 해외 사업자와의 국제 로밍 제공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IMT-2000 사업자를 식별하는 MNC<sup>15)</sup>는 일본의 기존 휴대전화 및 구미의 GSM방식, ANSI-41(일본의 cdmaOne에 해당)방식에서도 2자리로 운영하고 있으며 IMT-2000의 국제로밍에서의 신호 루팅 시 분석 자릿수는 국제적으로도 2자리일 것으로 예상되는 점, 참여 사업자 수가 100개를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행과 같은 2자리로 사용하는 것이 적

11) ITU-T: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Union, Telecommunications Sector

12) IMSI: International Mobile Subscriber Identity

13) PDC: Personal Digital Cellular. 일본의 디지털 이동전화 규격으로 일본에서 사용하는 시분할 다중접속(TDMA)방식의 독자규격

14) cdmaOne: CDMA 방식의 디지털 휴대 전화에 관한 국제 업계 단체인 CDG(CDMA Development Group)가 1997년 6월에 정한 현행 방식의 약칭. 1993년 7월에 미국 TIA(전기 통신 공업회)가 정한 IS-95 규격과 내용은 같음

15) MNC: Mobile Network Code(2~3자리로 사업자를 식별)

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IMSI는 이용자가 직접 사용하는 번호가 아니므로 단행일 필요는 없으며 이미 cdmaOne에서 15자리를 이용하고 있으므로 IMT-2000의 IMSI 합계를 15자리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IMSI는 일반 전화번호와 달리 자리수가 달라지면 별도의 번호체계로 취급되므로 IMT-2000의 MCC<sup>16)</sup>는 지금까지의 기존 휴대전화에서 이용하고 있는 440부터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 IV. 해외사례의 시사점

해외사례를 통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크게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번호통합의 목적이 미래의 번호수요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다. 즉, 번호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점이다. 번호란, 통신망과 통신이용자를 식별하기 위하여 정해놓은 하나의 식별자이다. 이러한 번호의 변경은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고 이용자의 불편을 동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번호체계는 미래의 수요를 감안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구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번호체계를 사업자식별번호체계가 아닌 서비스식별번호체계로 변경하였다는 점이다. 물론, 영국의 경우는 기존에도 사업자식별번호체계가 아닌 서비스식별번호체계를 가지고 있었지만, 변경이후에는 당연히 서비스식별번호체계를 준수하였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는 우리 나라처럼 기존에는 사업자식별번호체계를 가지고 있었으나, 번호통합을 계기로 서비스식별번호체계로 전환하였다. 우리 나라도 이제는 서비스식별번호체계의 전환을 통한 불필요한 번호마케팅을 단절할 때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번호는 사업자의 마케팅도구가 아니라, 이용자의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는 충분한 준비과정을 가지고 철저히 준비하였으며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했다는 점이다. 영국과 일본 모두 번호변경에 앞서 충분한 준비와 검토과정을 거쳤고, 상당 기간동안 기존 번호를 병행해서 사용하였다. 이는 변경이후에도 기존 번호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번호변경의 계획도 이러한 기존 번호의 사용할 경우 잘못 접속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상되었다는 것이다.

---

16) MCC는 패킷교환 어드레스로 사용되는 국번호의 DCC(Data Country Code)에 준하여 이용되고 있다(일본은 DCC로 440, 441, 442, 443이 할당되어 있음).

## V. 국내 적용시 고려사항 및 제언

앞서 살펴본, 영국과 일본의 사례와 이들 사례의 시사점을 토대로 국내 적용에 있어 고려사항을 살펴보았다.

우선 우리 나라의 경우는 번호통합이 이동전화 번호이동성정책과 함께 제기된 쟁점이기 때문에 이동전화의 번호통합을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정책과 연계해서 검토해야 한다는 점이다. 번호정책측면에서 볼 때, 번호통합과 번호이동성은 대상은 동일하지만, 목적은 다를 수 있는 정책대안들이다. 따라서, 효율적인 번호관리체계를 수립하면서 공정경쟁도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번호통합과 번호이동성이라는 정책대안들을 균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고려사항으로는, IMT-2000 서비스의 확산정도에 따른 탄력적인 정책 수립과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 나라는 IMT-2000 서비스의 번호로 「010」을 확정된 상태이고, 정부가 제안한 대로 IMT-2000 서비스간 번호이동성을 먼저 도입하는 상황에서 IMT-2000으로의 가입 전환의 추세는 이동전화 번호 이동성 정책과 이동전화 번호의 통합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것이다. 즉, IMT-2000으로의 전환이 조기에 이루어지고, IMT-2000간 번호이동성이 확산될 경우에는 번호통합을 보다 조기에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IMT-2000으로의 전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번호 통합과 이동전화의 번호이동성간의 정책 우선 순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고려사항으로는, 충분한 사전검토와 실행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정부차원의 연구와 계획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국내 적용에 있어서 고려사항들을 토대로 이동전화 번호통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이동전화번호의 통합에 대한 근본적인 목적과 원칙이 분명하게 제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앞서 영국과 일본의 경우처럼 미래의 번호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번호통합이 좋은 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미래의 번호수요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에서 번호통합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번호통합의 원칙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통합 실행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 실행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일정시점부터는 기존 2G 서비스의 신규 이용자에게 010 번호를 부여하여 010 번호통합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는 방안이다. 이럴 경우 현재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정책에서는 2GHz 대역의 IMT-2000 서비스만을 번호이동성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2G 가입자중 010을 부여받은 경

우에는 이 번호도 번호이동성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을 함께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번호 통합을 고려하여 3G의 번호를 부여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으나 이 때는 공정경쟁 측면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참 고 문 헌

- [1] 김진기, 「이동전화 번호이동성의 해외사례 분석」, 『정보통신정책』,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제13권15호 통권284호, 2001. 8. 16, pp.1~21.
- [2] 정보통신부,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도입방안, 2001. 12. 31.
- [3] OFTEL(Office of Telecommunications), *National Code & Number Change Framework Document: Code and Number Changes for Geographic, Mobile, Paging, Special Rate and Premium Rate Services*, 2001. 3. 20.
- [4] OFTEL(Office of Telecommunications), *The National Numbering Scheme*, 1997. 1.
- [5] 총무성, 전기통신번호지정현황